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 튼 히 무 장 하 자 !

로동신문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313호 【루계 제23265호】 주체99 (2010) 년 11월 9일 (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고 조명록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8일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의방문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인 김국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용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인민보안부장인 주상성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룡해동지,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리태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박정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우동측동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오극렬동지, 국방위원회 위원 백세봉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인 김명국동지, 김경옥동지, 김원홍동지, 정명도동지, 리병철동지, 김영철동지, 윤정린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인민무력부의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령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과 장의위원회 성원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옆에 서있었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장내는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일편단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저명한 활동가인 조명록동지를 잃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여 묵상하신 다음 가장 친근한 혁명전우, 혁명동지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고인의 유가족들을 만나시여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고 따뜻이 위로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고 조명록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8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국 방 위 원 회 와 무 력 기 관 들 에 서

고 조명록동지의 령구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 표시

【평양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8일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부를 비롯한 무력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이 중앙로동자회관에 안치되여있는 고인의 령구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령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옆에 서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인민무력부의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령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옆에 서있었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객들은 생애의 전기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는데서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특출한 공헌을 한 고 조명록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국 가 , 무 력 기 관 책 임 일 군 들

고 조명록동지의 령구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 표시

【평양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국가,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8일 고인의 령구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조의식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우이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커다란 공헌을 한 저명한 활동가인 조명록동지를 잃은 슬픔에 휩싸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인민무력부의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령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옆에 서있었다.

최영림동지, 전병호동지, 변영립동지, 김락희동지, 김창섭동지, 리하일동지, 항일혁명로투사들인 리을설동지, 김철만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조의방문하였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그들은 일편단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한생을 바친 고 조명록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였다.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

고 조명록동지의 령구를 찾아 애도의 뜻 표시

【평양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의 령구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고인의 령구가 안치되여있는 중앙로동자회관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우이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생을 바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저명한 활동가를 잃은 크나큰 슬픔을 안고 찾아오는 조객들의 대렬이 련이어 들어섰다.

2 면 으 로 계 속

희세의 정치원로를 모시여 존엄높은 위대한 당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때에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맞이한 뜻깊은 당창건 65돐!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은 지금도 온 나라를 끓는 환희와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로동당의 최고대표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심의 분출이며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일대 정치적사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의 앞길에는 밝고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결정적담보가 더욱 굳건히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특출한 정치군사적실력과 비범한 령도로 수십성상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김일성민족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풍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의 서문에는 이렇게 지적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자주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하고 김일성조선의 부강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인것만큼 마땅히 수령의 당으로 건설되여야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바로 여기에 수십성상에 걸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당령도사가 빛발치고있으며 조선로동당을 온 세상이 칭송하는 위대한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그이의 영원불멸할 업적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이였다.

세계정당사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완벽하고 리상적인 당의 전형을 기록하지 못하고있었다. 희세의 위인이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에 벌써 이 문제에 명백하고도 완전무결한 해답을 주시였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당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 당은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입니다. 우리 당을 완전무결한 수령님의 당으로 만드는것, 이것이 나의 필생의 과업입니다.

로동계급의 당력사가 그토록 해결을 기다리던 가장 위대한 당, 가장 리상적인 당의 징표와 본질에 대하여 고전적정식화로 밝혀주시는 그이의 이 가르치심에 우리 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려는 위대한 정치가의 비범한 예지와 결출한 선견지명, 비상한 정치적안목과 강철의 의지가 얼마나 세차게 맥박치고있는것인가.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이다!

인류력사의 크고작은 정당들이 그처럼 파란곡절을 겪으면서도 찾아내지 못한 이 귀중한 진리를 당중앙위원회에 령도의 자욱을 옮기시던 20대에 밝혀내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은 진정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수 없다.

혁명을 이끌어나가는 정치조직인 당은 곧 수령의 사상으로 숨쉬고 수령의 령도를 실현하여야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고 보시고 당건설에서 수령중심론을 주장하시며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 수령의 령도력, 수령의 인덕을 체현한 가장 위대한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시여 로동계급의 당의 리상적인 모습을 현실로 펼치신 경애하는 장군님,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비약적인 전변이 일어나던 1980년대 초엽의 뜻깊은 2월 16일 이런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단결되고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발전에서 처음으로 이룩된 위대한 업적이다. 우리 당을 이처럼 위력한 전투대오로 강화하고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게 한것은 김정일동지의 커다란 공로이다. …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대로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가장 뜨거운 찬사였고 그이의 업적에 대한 최상최대의 평가였다.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는데서 근본적인 문제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다.

당의 징표와 과업이 명백하다고 하여 누구나 그것을 쉽게 실현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전체 당원들, 나아가서 전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고 그들모두를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당중앙의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할 때만이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보통의 의지와 담력, 능력과 수완으로는 결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결출한 령도력을 완벽하게 체현한 위인만이 이 거창한 위업을 구상할수 있고 현실로 펼칠수 있다.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이 력사적과제를 스스로 걸머지신 우리 장군님께서 그 실현을 위하여 얼마나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던가.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세계사적지위를 밝히시고 그것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에 기초하여 전당주체사상화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전당주체사상화!

그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진행하고 우리 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의 분출이였다.

그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여오는 과정에 우리 당안에는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립되고 혁명적인 사업체계가 새롭게 세워졌으며 당사업에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철저히 구현되였다.

그 나날 우리 장군님께서 당사업에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적극 구현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며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따라배우도록 이끌어주신 이야기,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으시여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들을 정중히 꾸리고 삼지연대기념비와 같은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들을 곳곳에 일떠세우도록 하신 사실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벌리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과 크나큰 심혈의 세계를 우리 당력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재부로 소중히 간직하고있다.

사상의 일색화는 곧 당과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의미한다.

전당주체사상화의 열풍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낳았다.

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숨쉬고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된 위력한 단결,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이 단결은 인민에 대한 당과 수령의 믿음과 사랑,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의 충정의 결정체인 혼연일체로 발전되고 그 위력으로 우리 혁명은 오늘도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혼연일체라는 말은 일심단결이라는 말보다 더 단수가 높은 말이라고 하시면서 수령과 전사들,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사이의 관계를 뗄래야 뗄수 없는 혼연일체로 더욱 굳건히 다져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을 두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것은 우리 당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거대한 공적이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천만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고있다.

최근년간 우리 조국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혁명의 원칙,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며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고있는것도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 군대, 인민의 혼연일체를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하시였기때문이다.

참으로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자주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은 력사에 전무후무한 가장 결출하고 로숙한 당의 령도자, 혁명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나는 우리 당을 세대가 바뀌여도 대대손손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투쟁할것입니다!

일찌기 이 위대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우리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끝없는 심혈을 기울이시였고 그날의 의지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담아 온 세상을 격동시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끝이 없다.

온 세계가 공인하는 희세의 정치원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총비서로 높이 모신 위대한 조선로동당!

우리의 삶과 운명, 광명한 미래의 상징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백전백승의 력사만을 자랑스럽게 아로새길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인민군대는 총대와 함께 사상과 정신, 배짱과 담력, 고상한 도덕의리와 풍만한 정서를 소유한 혁명가들을 키우는 인간완성의 대학, 선군혁명대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가장 위력한 혁명집단입니다.》

주체96(2007)년 1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인민군대의 강화발전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인민군대는 단순히 총을 잡고 군사훈련만을 하는 무장집단이 아니라고, 인민군대는 군인들을 군사기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뿐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훌륭한 학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평범한 군인들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열혈투사로, 그 어떤 시련도 웃으며 헤치는 불굴의 인간으로 키우는 인민군대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학교, 선군혁명대학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귀중한 말씀을 받아안으며 인민군지휘성원들은 그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았다.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학교—선군혁명대학!

우리 인민군대의 사명과 지위를 부각시켜주는 뜻깊은 말씀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러주신 이 호칭속에는 인민군대가 헤쳐온 영웅적행로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 인간개조사업의 합법칙적로정우에서 인민군대가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가 담겨져있었다.

시대의 값높은 호칭—선군혁명대학

몇해전에도 사상정신적높이와 전투적역할, 창조방식과 생활기풍에서 커다란 전환을 이룩한 인민군대의 면모에 대하여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하시면서 인민군대는 혁명적군인정신의 발원지이며 선군혁명대학이라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정녕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이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학교, 선군혁명대학으로 된것은 천출명장이신 우리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의 손길과 폐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앞장에 내세우고 조성된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실 강의한 의지밑에 순간의 휴식도 없이 우리 인민군대를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멀고 험한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걸고걸으신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그 길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인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체질화하도록 하시고 부강조국의 래일을 위한 창조와 변혁의 본보기들도 마련하도록 하시였으며 선군문화도 인민군대에서 먼저 꽃피우도록 하시였다.

참으로 우리 인민군대는 평범한 군인들을 위대한 혁명가로 키우는 인간완성의 훌륭한 학교—선군혁명대학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과 보살피심속에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학교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여가는 우리 군인들은 조국보위에서도 사회주의건설에서도 혁명의 주력군, 제일기수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리 금 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로씨야 하바롭스크시장일행을 만났다

【평양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알렉싼드르 쏘꼴로브 로씨야 하바롭스크시장과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왈레리 쑤히닌 주조 로씨야련방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시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여러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거두고있는 모습을 목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프놈 뻰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페하

나는 캄보쟈왕국독립 57돐에 즈음하여 국왕폐하와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독립후 캄보쟈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왔으며 이 과정에 사회정치적안정과 급속한 경제적발전을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대왕폐하와 함께 마련하여주신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9(2010)년 11월 8일 평 양

다르 에스 살람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자카야 음리쇼 키크웨레각하

나는 최근 귀국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신이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의 중책을 다시 지니게 된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친선적인 탄자니아인민이 당신의 옳바른 령도밑에 사회경제분야에서 진보와 발전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9(2010)년 11월 8일 평 양

주조 외교단과 무관단, 해외동포들

고 조명록동지의 령구를 찾아 조의 표시

【평양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과 무관단이 8일 고인의 령구가 안치되여있는 중앙로동자회관을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

령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과 장의위원회 성원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옆에 서있었다.

손님들은 외교단과 무관단의 명의로 된 화환들을 진정하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투쟁한 고 조명록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손님들은 조의록에 글을 남기였다.

이날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도 고인의 령구를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

1면에서 계속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인민무력부의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령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령구옆에 서있었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객들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군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며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데 특출한 공헌을 한 고 조명록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내각총리 최영림동지와 일행

중국 료녕성 체류

중국 동북지역을 비공식실무방문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최영림동지와 일행이 료녕성 심양시와 대련시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총리일행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5월에 찾으시였던 심양송풍기유한공사, 대련기관차생산공사, 대련빙상그룹, 료녕어업그룹, 오랜 력사유적인 북릉공원 등을 돌아보았다.

한편 최영림동지는 중국공산당 료녕성위원회 서기 왕민, 료녕성인민정부 성장 진정고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총리일행과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체류기간 총리일행은 중국공산당 료녕성위원회와 료녕성인민정부 그리고 중국공산당 심양시, 대련시위원회와 해당 인민정부의 공동명의로 된 연회들에 초대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규격화사업과 경제적실리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는 규격화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이 제시되여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자면 규격화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경제적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품의 규격화를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규격화사업이 힘있게 진행되고있으며 규격화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규격화란 제품의 모양과 크기, 품질 등에 대한 일정한 규격과 기준을 제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규격은 사물현상의 주요특성기준과 그에 대한 요구를 과학기술활동과 생산실천경험의 종합적성과에 의거하여 광범한 합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으로 규제한 법적규정을 말한다.

규격화는 생산경영활동을 단순화, 통일화, 호환화, 최량화함으로써 경영활동의 실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경제관리수단의 하나로 되고있다.

단순화는 제품의 품종이 복잡하게 늘어나는것을 막고 합리적으로 조절통제함으로써 생산활동과 제품관리, 상품리용에서의 편리성을 원만히 보장하게 한다. 책상의 너비 치수가 산만무질서하던것을 일정한 치수간격으로만 선정할수 있게 규제함으로써 생산을 계렬화, 다량화할수 있는 조건이 대폭적으로 증대되고 제품에 대한 인계, 인수, 보관, 수송, 주문, 리용의 편리성이 훨씬 개선되게 된것은 단순화의 실례라고 말할수 있다.

통일화는 반복되는 사물현상의 주요특성과 요구를 하나로 일치시키게 함으로써 사회경제문화생활의 전반적령역에서 막대한 실리를 보장하게 한다. 문자나 수자, 기호, 측정단위들과 함께 교통안내표식, 콤퓨터건반배렬 등을 전사회적으로 일치시키고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일치시켜나가고있는것은 통일화의 전형적인 실례로 된다.

호환화는 다양성과 련관성, 중복성을 가진 사물현상들사이의 호상맞물림을 밀접히 결합시켜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생산을 힘있게 추동하게 한다. 서로 다른 기종의 콤퓨터부분품들사이의 호상교체가 원활하고 수송짐함의 치수가 자동차의 적재함, 철도화차, 배의 선창, 항공수송기의 짐칸 등의 치수와 합리적으로 어울리도록 규제된것은 호환화의 실례로 된다.

최량화는 제품의 질과 원가사이의 호상관계를 고려하여 경제관리에서 가장 큰 실리를 얻게 한다. 규격화의 견지에서 볼 때 원가타산이 없이 제품의 질을 무한정 높이는것이 다 좋은것은 아니다. 제품의 질적지표를 그 쓸모와 가격과의 관계를 고려한 수요자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효과성을 달성하게 하는데 이것은 최량화를 통하여 진행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규격화에 대한 요구는 대단히 엄격하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국가행정관리기구가 개별적인 기업소들의 기업관리에 대하여서는 대체로 방관시하거나 간섭하지 못하지만 제품의 규격화문제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통제하고있으며 제품규격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장악통제가 엄격하게 진행되고있다. 그러므로 국제시장에서 점유률이 높은 상품들은 하나와 같이 규격화되여있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있고 국가의 통일적지도에 의하여 경제가 계획적으로 관리운영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규격화사업을 개선강화해나가기 위한 무궤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규격화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나라의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일군들이 규격화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과 당의 규격화정책을 심장깊이 새기고 이 사업에 사상적으로 발동되는것이다.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과 요구에 맞게 규격화의 수준과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며 당의 규격화정책과 어긋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어떤 제품이나 국가적으로 국규를 정해놓고 생산하며 같은 제품에 대하여서는 규격을 통일시키고 똑같은 질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라의 규격화중심기지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규격화사업의 직접적담당자로서의 사명을 보다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나라의 모든 규격들과 제품들을 구체적으로 장악등록하고 정상적으로 료해분석한데 기초하여 같은 제품에 대하여서는 규격을 통일시키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규격화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광범한 대중이 적극 떨쳐나서는것이 중요하다. 규격화사업은 전사회적, 전국가적범위에서 가장 큰 실리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요구와 기준을 규제하고 준수하도록 장악통제하는 사업인것만큼 그 효과성이 경제강국건설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하자면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여야 한다.

더우기 이 사업은 나라의 대외적권위와 나라들사이의 호상관계, 교류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인것만큼 규격화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는것은 높은 공민적자각과 민족적자존심의 발현으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규격화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김 주 일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해주기초식품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에서 현시기 가장 절실하게 제기되는것이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얼마전 해주기초식품공장의 생산공정을 돌아본 도안의 수많은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증자기술대신 압출변성기술을 받아들여 원료의 전처리공정에서 증기를 전혀 쓰지 않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료를 가공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석탄보이라를 쓰지 않는 공장으로 불리우고있었던것이다.

공장에서는 이미 발효공정의 CNC화를 실현하고 곡자생산공정의 CNC화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이렇듯 공장에서 최첨단돌파의 열풍, 기적창조의 열풍이 일게 된 비결은 초급당위원회가 인재들과의 사업을 중시한데 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가 선차적으로 중시한 문제의 하나는 당일군자신들부터가 인재들과의 사업을 능란하게 할수 있는 높은 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부단히 노력하고있는것이다. 이곳 초급당일군들이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기울인 사색과 탐구는 끝이 없었다. 이 과정에 초급당일군들은 종업원들로부터 공장에 없어서는 안될 일군, 인재로 불리우게 되였다. 이렇게 되니 자연히 당일군들과 인재들과의 교감도, 사업상 련계도 깊어져 최첨단돌파의 열풍이 일기 시작하였다.

묻혀있으면 인재가 아니다. 찾아내여 쓰고 내세워야 인재다.

그래서 인재의 공보다 인재를 천거한 공을 더 높이 친다는 말이 있다.

인재들과의 사업에서 이곳 초급당위원회가 중시한 다른 하나의 문제는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인재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여 그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울수 있는 활무대, 창조의 발판을 만들어준것이다.

2축압출변성기를 만들어 원료의 전처리공정에서 증기를 쓰지 않고 원료를 가공할수 있는 합리적인 안과 발효공정의 CNC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의 일이다.

처음 해보는 일이여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이때 초급당비서 오선규동무와 지배인 리주연동무는 합심하여 기술준비실, 맛내기종곡작업반, 발효간장작업반에 들어가 로동자들을 빠짐없이 만나 담화하면서 인재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부터 앞세웠다.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인재들이 적지 않았다. 전기부문에 정통한 설비부원 신광욱, 전자기술이 능한 김학수, 콤퓨터기술이 높은 손명석동무를 비롯하여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인재들의 지혜와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이 생겼다.

초급당위원회는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이들에게 사업조건과 필요한 보장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주도록 하였다.

별로 크지 않은 재능의 싹을 보고도 대담하게 과업을 맡기고 당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는데 감동된 인재들의 열의는 대단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일군들이 인재들과의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도록 이끌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한사람에게만 맡기는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주어 그들의 지혜를 남김없이 계발시키도록 하였다.

한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도 여러차례 합평회를 조직하여 그에 대한 설비제작과 설치작업공정에서 자기가 어떤 부문을 맡아가지고 해낼것인가 하는 결심도 가지게 하였다.

이렇게 되니 인재들호상간에 최첨단기술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지혜가 합쳐지고 협동작전도 잘되였다.

대담한 착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투는 어려웠다.

그럴수록 초급당일군들은 늘 인재들속에 들어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모든 전선에서 최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일게 하시기 위하여 기울이신 불면불휴의 로고와 정력적인 지도에 대한 감명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성공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었다. 실패도 있었고 주저할 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초급당일군들은 최첨단돌파의 열풍속에 남먼저 뛰여들어 한몸을 내대며 일군들과 인재들,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의 전투적사기와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발효공정의 CNC화를 위해 애쓰는 인재들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초급당일군들이 지배인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왼심을 쓰던 일, 인재들의 후방사업을 위해 밤낮이 따로없이 뛰여다니던 이야기는 아직도 일군들과 인재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2축압출변성기를 만들어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맛좋고 영양가 높은 기초식품을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을 뿐아니라 발효공정을 높은 수준에서 CNC화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그렇다.

인재들은 자기들에게 창조의 발판을 만들어주고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되여 알찬 열매를 맺도록 뜨겁게 이끌어주는 이런 당일군들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따른다.

본사기자 최 일 호

과학기술열풍이 일어난 비결

구성닭공장 일군들

2중3대혁명붉은기 구성닭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대고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닭공장들에서는 실험실을 비롯한 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자체실정에 맞게 가금업에 대한 연구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장초급당위원회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가금업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는 길은 최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누구나 과학연구사업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사업이 잘된것은 아니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은 과학연구기관에서나 하는것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에 선뜻 뛰여들기를 주저하였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것인가를 궁리하던 초급당비서 김광암동무는 지배인 백영복, 기사장 주현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마주앉아 온 공장에 과학기술열풍이 세차게 일게 하기 위한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초급당비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사관철해야 한다, 그래서 최첨단과학기술을 생산에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떨쳐나서야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군들부터 과학기술전에 적극 뛰여들자고 하였다.

발명 및 창의고안증서 20여건을 받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 선 초급당일군이 먼저 새로운 먹이생산공정 확립을 위한 경제기술적방도를 학위론문으로 완성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공학을 전공한 초급당비서가 축산과 관련한 문제를 과학연구목표로 정한것은 공장의 일군들에게 신심을 가지게 하였다. 지배인과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고기와 알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새로운 문제들을 연구목표로 정하였다.

초급당일군은 일군들이 모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연구사업정형을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주군 하였다. 기술혁신사업에서 애로가 있을 때에는 과학연구기관과의 련계도 취해주어 도움을 받게 하였다.

일군들은 앞장에서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든든한 배심을 가지게 되였고 따라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주동적으로 조직진행해나가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누구나 발명의 능수가 되자는 내용으로 해설담화도 진행하고 기사장이 주도적으로 기술혁신운동을 맡아 활발히 벌리도록 분공도 조직하고 그 총화도 깐지게 하도록 하였다.

종업원들은 누구나 과학기술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떨쳐나섰다. 하지만 일군들이 생각한것보다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못하였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

생각을 거듭하던 초급당일군은 당초급일군들이 과학기술열풍을 세차게 일구는 불씨가 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당세포비서들인 알깨우기작업반의 리경근, 전기작업반의 조인철동무들이 창안한 기술혁신안들을 성공에로 이끌어주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밀고나갔다.

자기들과 함께 일하는 당세포비서들이 기술혁신에 성공한것을 보면서 종업원들은 기술혁신이 결코 신비한것이 아니며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당조직과 집단의 지지와 방조속에 성공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였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이런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면서 공장적인 발명 및 창의고안현상모집을 조직하였다. 이 사업에 종업원들모두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참가하도록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짜고들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수한 기술혁신안들은 기술자, 기능공들의 집체적지혜를 모아 완성하여 생산에 받아들이는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이 과정에 축산작업반의 김정애동무를 비롯한 많은 로동자들이 여러건의 발명 및 창의고안을 하게 되였고 알깨우기작업반의 로동자 최광혁동무는 학위소유자가 되였다. 초급당일군은 지난 8월에 진행된 제11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 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 확립에 대한 발명을 내놓아 금메달을 받았다.

발명 및 창의고안성과들이 생산에 널리 도입되는 나날에 공장에는 수많은 자력갱생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확립되여 생산물의 원가를 대폭 낮추고 많은 알곡먹이를 절약하면서도 알과 고기생산을 부쩍 늘이게 되였다.

올해에만도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속에서 여러명의 학위소유자들이 나오고 50여건의 기술혁신안이 생산에 도입되여 큰 은을 내게 되였다. 그리하여 공장은 과학기술로 흥하는 공장이라는 호평을 계속 받게 되였으며 수많은 종업원들이 발명가, 창의고안명수로 자라나게 되였다.

이 공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일군들이 과학기술전의 앞장에 서면서 집단의 단합된 힘과 지혜로 과학기술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갈 때 생산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 종 석

기술혁신에서 단번성공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은 혁신적안목과 담력을 가지고 자기 부문의 기술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목표를 높이 세우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누구나 다 가치있는 창의고안과 새 기술발명을 하여야 합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목표수행정형을 분석해보면 특징적인것이 있다.

그것은 기술혁신성과의 대다수가 단번성공으로 이룩되였다는것이다.

그 한 실례가 있다.

소조원 박창혁동무가 자동차기판의 심장부를 이루는 어느 한 부속품의 수명을 늘이기 위한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이 기술혁신과제에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부 사람들은 이 연구과제의 수행이 오랜 시간에 걸쳐 몇차례의 실패를 거듭하여야 성공할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실패, 그것은 곧 시간, 자재, 자금의 랑비였다.

박동무가 연구를 시작하여 얼마 지난 어느날이였다.

일부 동무들이 이제는 문헌조사도 기본적으로 끝나고 기술적지표들도 쥐였으니 빨리 실험에 들어가자고 그를 부추기였다.

그러나 박동무의 생각은 달랐다. 실험에 들어가자면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한것 같았다.

만약 경우 실패한다면 그 원인을 찾느라고 시간을 보내야 하였고 새 실험을 위해 또다시 자재들을 구입하여야 하였다.

대고조시대의 3대혁명소조원의 량심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남들이 백걸음, 천걸음 걸은것을 한걸음에 뛰여넘어야 할 대고조시대가 아닌가. 단번성공을 목표로 내달리자.)

박동무는 더욱더 분발하였다.

또다시 진행되는 폭넓은 문헌조사, 새로운 기술지표들의 계산 등 낮과 밤이 따로없는 탐구의 나날이 흘렀다. 그리고 부 사람들은 이 연구과제의 수행이 오랜 시간에 걸쳐 몇차례의 실패를 거듭하여야 성공할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실패, 그것은 곧 시간, 자재, 자금의 랑비였다.

박동무가 연구를 시작하여 얼마 지난 어느날이였다.

일부 동무들이 이제는 문헌조사도 기본적으로 끝나고 기술적지표들도 쥐였으니 빨리 실험에 들어가자고 그를 부추기였다.

그러나 박동무의 생각은 달랐다. 실험에 들어가자면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한것 같았다.

만약 경우 실패한다면 그 원인을 찾느라고 시간을 보내야 하였고 새 실험을 위해 또다시 자재들을 구입하여야 하였다.

대고조시대의 3대혁명소조원의 량심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남들이 백걸음, 천걸음 걸은것을 한걸음에 뛰여넘어야 할 대고조시대가 아닌가. 단번성공을 목표로 내달리자.)

박동무는 더욱더 분발하였다.

또다시 진행되는 폭넓은 문헌조사, 새로운 기술지표들의 계산 등 낮과 밤이 따로없는 탐구의 나날이 흘렀다. 그리고 생산과정을 직접 보고 생산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멀리 희천과 무산으로 다니기를 그 몇번인지 모른다.

그 과정에 새로운 문제점들을 찾아쥐게 되였고 기발한 착상도 하게 되였다. 하여 그는 첫 실험에서 단번에 성공하게 되였다. 세기와 내마모성, 수명제고 등 모든 기술적지표들을 만족시키는 시제품을 내놓은것이다.

성과는 이뿐이 아니다.

어랑천발전소건설에 쓰이는 륜전기재들과 각종 기계부분품들의 수명을 늘이기 위한 자체마모수복제연구에서도 하철운동무는 단번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전명혁동무가 공업폐설물로 내수성과 강도가 보장된 새로운 건설용블로크를 만들어낸것을 비롯하여 이곳 소조원들모두가 기술혁신에서 단번성공의 명수들로 자라났다.

기술혁신에서의 단번성공, 그것은 혁신적안목과 담력으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과학과 기술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제끼려는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의 창조관점, 창조방식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오 철 권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 질좋은 제품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하여 집체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 김 진 명 찍음

계속혁신에로 떠밀어주며

천내리세멘트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기술자들과의 사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에서 현시기 가장 절실하게 제기되는것이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얼마전 해주기초식품공장의 생산공정을 돌아본 도안의 수많은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증자기술대신 압출변성기술을 받아들여 원료의 전처리공정에서 증기를 전혀 쓰지 않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료를 가공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석탄보이라를 쓰지 않는 공장으로 불리우고있었던것이다.

공장에서는 이미 발효공정의 CNC화를 실현하고 곡자생산공정의 CNC화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이렇듯 공장에서 최첨단돌파의 열풍, 기적창조의 열풍이 일게 된 비결은 초급당위원회가 인재들과의 사업을 중시한데 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가 선차적으로 중시한 문제의 하나는 당일군자신들부터가 인재들과의 사업을 능란하게 할수 있는 높은 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부단히 노력하고있는것이다. 이곳 초급당일군들이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기울인 사색과 탐구는 끝이 없었다. 이 과정에 초급당일군들은 종업원들로부터 공장에 없어서는 안될 일군, 인재로 불리우게 되였다. 이렇게 되니 자연히 당일군들과 인재들과의 교감도, 사업상 련계도 깊어져 최첨단돌파의 열풍이 일기 시작하였다.

묻혀있으면 인재가 아니다. 찾아내여 쓰고 내세워야 인재다.

그래서 인재의 공보다 인재를 천거한 공을 더 높이 친다는 말이 있다.

인재들과의 사업에서 이곳 초급당위원회가 중시한 다른 하나의 문제는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인재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여 그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울수 있는 활무대, 창조의 발판을 만들어준것이다.

2축압출변성기를 만들어 원료의 전처리공정에서 증기를 쓰지 않고 원료를 가공할수 있는 합리적인 안과 발효공정의 CNC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의 일이다.

처음 해보는 일이여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이때 초급당비서 오선규동무와 지배인 리주연동무는 합심하여 기술준비실, 맛내기종곡작업반, 발효간장작업반에 들어가 로동자들을 빠짐없이 만나 담화하면서 인재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부터 앞세웠다.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인재들이 적지 않았다. 전기부문에 정통한 설비부원 신광욱, 전자기술이 능한 김학수, 콤퓨터기술이 높은 손명석동무를 비롯하여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인재들의 지혜와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이 생겼다.

초급당위원회는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이들에게 사업조건과 필요한 보장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주도록 하였다.

별로 크지 않은 재능의 싹을 보고도 대담하게 과업을 맡기고 당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는데 감동된 인재들의 열의는 대단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일군들이 인재들과의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도록 이끌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한사람에게만 맡기는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주어 그들의 지혜를 남김없이 계발시키도록 하였다.

한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도 여러차례 합평회를 조직하여 그에 대한 설비제작과 설치작업공정에서 자기가 어떤 부문을 맡아가지고 해낼것인가 하는 결심도 가지게 하였다.

이렇게 되니 인재들호상간에 최첨단기술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지혜가 합쳐지고 협동작전도 잘되였다.

대담한 착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투는 어려웠다.

그럴수록 초급당일군들은 늘 인재들속에 들어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모든 전선에서 최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일게 하시기 위하여 기울이신 불면불휴의 로고와 정력적인 지도에 대한 감명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성공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었다. 실패도 있었고 주저할 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초급당일군들은 최첨단돌파의 열풍속에 남먼저 뛰여들어 한몸을 내대며 일군들과 인재들,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의 전투적사기와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발효공정의 CNC화를 위해 애쓰는 인재들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초급당일군들이 지배인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왼심을 쓰던 일, 인재들의 후방사업을 위해 밤낮이 따로없이 뛰여다니던 이야기는 아직도 일군들과 인재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2축압출변성기를 만들어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맛좋고 영양가 높은 기초식품을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을 뿐아니라 발효공정을 높은 수준에서 CNC화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그렇다.

인재들은 자기들에게 창조의 발판을 만들어주고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되여 알찬 열매를 맺도록 뜨겁게 이끌어주는 이런 당일군들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따른다.

당적지도를 짜고들고있다.

당조직에서는 기술자들속에 새로 제시되는 당정책을 제때에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그들이 최첨단돌파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자신들이 할 몫을 뚜렷이 알고 더욱 분발해나서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이와 함께 그들의 사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며 생활에서 애로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와 관심속에 분발해나선 공장기술집단은 지난해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한 생산공정의 콤퓨터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한해에 수천t의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세멘트생산을 1.3배로 높일수 있게 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당창건 65돐을 맞은 뜻깊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불굴의 정신력으로 자랑찬 위훈을 창조

대동강과수종합농장확장공사에 동원된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사단 돌격대원들

선군11경으로 그 이름 더욱 자랑높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돼지공장건설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대동강과수종합농장확장공사에 떨쳐나선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사단 돌격대원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현대적인 돼지공장이 마침내 제모습을 자랑하며 우뚝 솟아올랐다.

돌격대원들은 례년에 없이 많은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단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량의 흙을 처리하고 건축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성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이 성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워나가는 이곳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불굴의 기상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번 하자고 결심한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결단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현대적인 돼지공장을 일떠세울데 대하여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사단이 맡아안게 되였다는 사실이 전해졌을 때였다.

사단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슴은 감격과 격정으로 높뛰였다.

《우리는 또다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았습니다. 물론 공사량은 아름차고 조건은 불리합니다. 그러나 혁명의 성지 백두산지구건설에서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만 있으면 못해낼것이 없습니다. 저는 단 몇달사이에 현대적인 돼지공장건설을 기어이 완공하고 최고사령관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자는것을 제기합니다.》

지휘관인 박재석동무의 이 호소에 전체 돌격대원들이 주저없이 한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아시는 전투원들이다. 완공의 날을 앞당겨 승리자의 영예를 떨치자!

산악같이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은 즉시 공사장으로 진출하였다. 공사장은 하루밤사이에 붉은기들로 뒤덮였고 쾌불과 우등불의 바다가 펼쳐졌다.

이들앞에는 연건평이 1만여㎡에 달하는 방대한 건축공사를 몇달사이에 끝내야 하는 어렵고도 방대한 과업이 나섰지만 누구 하나 주저하지 않았다. 굴착기 등 륜전기재들과 자재들이 미처 도착 못한 상태였지만 돌격대원들은 기초파기전투에 뛰여들어 구슬땀을 흘리였다.

그때 지휘관들은 자체로 벽돌을 생산할것을 대담하게 발기하였다. 초보적인 타산에 의하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벽돌량은 대단하였다. 벽돌공장에서 벽돌을 보장해줄것을 기다린다면 공사기일을 앞당길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당장 자체로 벽돌을 생산할수 있는 방도도 경험도 없었다. 돌격대원들속에서는 론의가 분분하였다.

이때 지휘관들은 이렇게 주장을 세웠다.

—오늘의 총진군은 과감한 공격전이다.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공격정신만 있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 이 길만이 승리자의 영예를 떨치는 길이다.

그날부터 사단지휘부는 물론 각 도인민보안국대대의 사무실, 침실들에서 밤깊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자체의 힘으로 벽돌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열기띤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휘관들은 공사를 조직하고 지휘하면서 여러 벽돌공장들과 기술자들을 찾아 밤길을 걸었다. 이 나날에 평안남도인민보안국대대의 일군들은 흔한 원료를 리용한 벽돌생산방법을 착상해내게 되였다.

그 착상을 무르익혀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전시키는 기적을 낳기마련이다.

드디여 이들은 벽돌생산에 성공하였다. 결과 돌격대원들은 공사에 필요한 많은 벽돌을 짧은 기간에 생산해냄으로써 건축공사기일을 훨씬 앞당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공사장에서 벽체축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였다.

어느 대대에서나 골재에 대한 요구가 훨씬 높아졌다. 하루에도 대형자동차로 수십대씩 들어오는 흔석과 모래가 순식간에 바닥이 나군 하였다. 게다가 련일 내리는 비때문에 강물이 불어나 골재를 채취할수가 없었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언을 심장에 새길 때 못해낼 일이란 없다!

지휘관들이 이렇게 웨치며 앞장에 나섰다. 그뒤를 따라 돌격대원들이 먼 골재채취현장으로 달려나가 서슴없이 물속에 뛰여들었다. 며칠씩 물속에서 작업하다나니 다리와 발이 퉁퉁 부어올라 신발도 제대로 벗을수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이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앞에 맹세다진대로 완공기일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는 결사의 의지를 안고 힘찬 전투를 벌리였다. 그리하여 불과 열흘안팎에 여러곳에서 많은 골재를 채취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여기며 긴장한 전투를 벌려온 그 나날 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된것은 오직 하나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일념뿐이였다.

합리적인 건설공법을 받아들이며 지대정리와 기초공사를 앞당기는 기적을 창조하여 사람들을 놀래웠던 그 나날에 돌격대원들이 한밤을 지새우며 부른 노래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였다. 어느날 깊은 밤 태풍이 일어 미처 완성하지 못한 지붕철판이 날려갈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 황해북도인민보안국대대의 돌격대원들이 결사적인 투쟁을 벌리며 부른것도 그리움의 송가, 신념의 노래였다.

그 신념은 돌격대원들에게 산도 떠옮기는 담력과 배짱으로 날에날마다 새로운 위훈을 낳게 하였다.

비육3호동의 기둥쌓기과제가 나섰을 때였다. 그 기둥들을 새로 쌓자면 여러날이 걸려야 하였다.

—기일을 단축할 방도가 없겠는가. 함경북도인민보안국대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토의를 거듭하였다. 이때 1중대장 김광명동무가 다른 곳의 불필요한 기둥들을 통채로 옮겨올것을 대담하게 발기하고 돌격대원들과 지혜를 합쳐나갔다. 돌격대원들의 불같은 공격정신은 드디여 기발한 착상을 낳게 하였으며 실천에 옮겨졌다. 결과 이들은 기둥들을 통채로 옮겨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지붕보조립을 맡은 돌격대원들도 결사전을 벌리였다. 쏟아지는 무더기비로 땅바닥이 진흙투성이여서 기중기차를 움직일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몸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울 불같은 마음안고 떨쳐나섰다. 즉시 통나무로 뗴를 뭇고 그우에서 기중기차를 움직이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리하여 이들은 지붕보조립을 제기일안에 성과적으로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강원도인민보안국대대의 돌격대원들은 물랑스건설장에서 골재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들이 움직일수 없게 되였을 때에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비속을 뚫고 등짐으로 골재를 나르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골조를 축조하고 한㎡의 벽체를 미장해도 거기에 자기들의 깨끗한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먼 후날에도 자신들이 건설한 창조물이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게 완공하자는것이 돌격대원들모두의 철석같은 신념이였다.

하기에 이곳 돌격대원들은 매 공정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수십번씩 반복하며 기술전습을 진행하고서야 작업을 진행하군 하였다.

그들의 심장속에 맥박치는것은 오직 하나 결사관철의 정신이였다.

—제힘을 믿고 대담하게 달라붙을 때 기적이 창조되고 새로운 비약이 일어난다.

이것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새로운 공사속도를 창조한 이곳 돌격대원들의 심장의 목소리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생각하며 어머니조국에 뜨거운 심장을 바쳐가는 미더운 돌격대원들이 있어 현대적인 돼지공장이 선군시대의 자랑찬 창조물로 거연히 일떠서고있다.

글 본사기자 황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리 명 일

위대한 충정의 세계가 안아온 시대의 메아리

올해에 창작된 당에 드리는 송가들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에서 태여난 노래는 시대의 메아리가 되여 천만의 심장을 울린다.

내 조국땅우에 위대한 김일성조선의 영광과 찬란한 미래를 펼쳐가는 우리 당의 창건 65돐을 가장 뜻깊게, 가장 성대하게, 가장 환희롭게 경축한 10월의 하늘가에 울린 새 노래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을 더욱 뜨겁게 하여준다. 우리 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나온 가요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당은 장군님의 품》, 《당을 노래하노라》, 《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와 같은 노래들은 선군혁명의 진군가가 되여 천만군민의 대오에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위대한 당의 기치따라 승리에로 내닫는 내 조국의 하늘가에 랑랑히 울려퍼지는 이 노래들은 격동적인 시기에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숨결이 맥박치는 시대의 웨침이고 메아리이다. 이 노래들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위대성을 피와 살로 새겨가는 천만군민이 터친 심장의 울림이며 향도의 당을 받들어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가려는 억센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확신성있게 령도하여나가고있다.》

가요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는 뜻깊은 올해의 10월의 하늘가에 처음으로 울려퍼진 새 노래이다.

노래가 10월의 주제가마냥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경축의 분위기를 고조시킨것은 비단 곡조가 새롭고 시어가 현란하여서가 아니다.

노래가 그렇듯 강렬한 감화력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는것은 오늘 우리 선군시대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환희와 긍지에 넘친 정서속에 진실하게 반영하였기때문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당도 많지만 우리 나라처럼 당과 대중이 하나로 뭉쳐 당은 인민을 제일로 위하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나라는 없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오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승리와 영광의 력사만을 떨쳐온 복받은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격정이 노래에 비껴있다.

그대가 펼쳐준 하늘에 당기는 휘날리고
그대가 꽃피운 락원에 당복이 넘쳐나네
누구나 어머니품이라 부르며 따르는 당이여
그 품에 안기여 누리는 이 행복 끝없어라
…

가요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는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가장 열렬히 흠모하는 선군시대 참된 인간들의 뜨거운 마음이 낳은 충정의 메아리이다.

뜨거운 믿음앞에 인간은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격정으로 호응한다. 흘러온 투쟁의 나날 우리 당은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 모두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아안을수 없었던 가장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었다. 력사의 류례없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꿋꿋이 지켜주고 끌까지 이끌어 승리의 상상봉에 올려세워준 당의 사랑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당만을 믿고 따르려는 마음을 신념으로, 체질로 새기였다.

군대와 인민의 이 신념을 더욱 굳게 하여준것은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더욱 세련되고 위력떨치는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에 대한 열렬한 확신이였다. 당을 따라 력사의 언덕을 넘고넘으며 천만군민은 온 세상에 빛발치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자신들의 생활속에서 심장으로 확인할수 있었다. 이 나날 인민들의 가슴속마다에 파도쳐온 환희와 격정, 신심과 충정의 열도는 그대로 새 세기에도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낳았고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위대한 투쟁정신, 강렬한 지향으로 이 땅우에 굽이쳤다.

어찌 장구한 혁명투쟁사에 깃들어있는 우리 당의 령도의 자욱을 현란한 시어나 격조높은 표현에 쉽게 담을수 있고 평범한 인간의 크지 않은 심장으로 받아들일수 있으랴.

그러나 자신들을 력사의 참된 주인, 세기적인 기적의 창조자로 내세워주고 진정한 삶의 행복을 안겨준 당의 위대함을 길이길이 전하고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심장을 터쳐 노래하고있다.

…
영광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감사 감사를 드리자 향도의 우리 당에
노래 노래를 드리자 불패의 우리 당에
한마음 우러러 영광드리자

부를수록 환희에 젖고 들을수록 감격에 젖는 칭송의 노래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기를 두고 터치고싶었던 위대한 당에 대한 칭송의 감정, 격찬의 감정이 시어마다에, 선률마다에 굽이치는것이여서 노래의 서정은 이렇듯 열렬한것이다. 위대한 당을 우러러 이 세상 제일 큰 영광을 드리고싶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드리고싶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깨끗한 충정의 세계가 이렇듯 환희로운 선률을 펼친것이다.

인간의 내면세계와 체험을 강렬한 정서로 펼치는것이 음악이라면 그 음악적사색의 정화는 가요라고 말할수 있다.

하다면 자기 령도자와 당에 대한 인민의 칭송의 감정이 진실하게 비낀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와 같은 노래야말로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음악이고 명곡중의 명곡인것이다. 때문에 노래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10월의 경축광장을 더욱 환희롭게 단장함으로써 명실공히 당에 대한 찬가로 그 력사적지위를 당당히 차지할수 있는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받아안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펼쳐가던 지난 3월에는 《당은 장군님의 품》이라는 새 노래가 태여났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을 맞이한 6월에는 《매혹과 흠모》, 《당을 노래하노라》와 같은 명곡들이 그리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혁명적대교조의 열풍이 세차게 타번지던 지난 9월에는 《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가 련이어 창작되여 인민들을 기쁘게 하여주었다.

그 품에 안기면 어머니같고
그 손 잡으면 아버지같네
이 땅에 태여난 내 삶의 숨결
이어놓은 그 심장이 우리 당이야
당은 내 나서 안겨사는 집
당은 내 희망 펼치는 대지
당은 내 운명 빛내여주는
영원한 푸른 저 하늘
당은 장군님의 품
…

진정한 명곡의 가치는 그에 슴배여있는 인민의 넋과 시대의 감정에 따른다.

인간은 정서의 금선을 타고 울리는 노래를 통하여 격동적인 시대와 혁명적인 사변들을 구가한다.

뜻깊은 올해의 날과 달들에 울려퍼진 새 노래들처럼 세기를 두고 인민의 가슴마다에 쌓이고 덧쌓여온 숭엄한 사상감정을 강렬하고 환희로운 서정으로 폭발시킨 명곡들이야말로 진정 인간에게 순결한 넋을 심어주는 심장의 메아리로, 시대의 숨결로 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것이다. 이전시기의 노래들에 차넘치던 전투적인 기백과 부드러운 정서가 보다 경축적이고 환희와 랑만에 넘친 새로운 서정으로 승화되여 울리는 이 노래들에는 바로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시대와 혁명을 이끄는 우리 당에 대한 전체 인민의 사상감정, 확고한 신념과 의지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경모의 정이 함축되여있다.

격동과 사변, 전환과 기적으로 가득찬 우리 혁명의 력사는 그 갈피마다에 바로 이런 전인민적인 심장의 울림, 시대의 메아리들을 수많이 수놓고있다.

《당의 기치따라》, 《로동당은 우리의 향도자》,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어머니당이여》,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당중앙의 불빛》,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우리의 신념은 하나》,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

이 노래들은 혁명의 년대들마다에서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면서 력사의 준령을 넘어온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던 격정의 분출이였다. 하여 이 노래들은 우리 혁명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전해질 당에 대한 송가들로 되여 이 나라의 하늘가에 세상에 둘도 없는 음악의 기념비들을 수많이 세워놓았다.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당은 장군님의 품》, 《당을 노래하노라》, 《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와 같이 이해에 나온 우리 당에 대한 새로운 찬가들은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혁명의 새로운 격동기에 살며 투쟁하는 인민의 가슴에 물결치는 환희의 웨침이며 격정의 토로이다. 하여 이 노래들은 혁명의 년대들에 울려퍼진 시대의 명곡들과 더불어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명곡들로 주체음악예술의 발전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고있다.

뜻깊은 이해에 새 노래들이 련이어 나오고있는것은 실로 경사스러운 일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노래들을 부르며 위대한 당이 있어 내 조국은 더욱 부강해지고 당의 향도아래 인민의 행복은 커만 간다는 진리를 더욱 확신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새로운 승리와 기적을 이룩해나가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며 비길데없는 영광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혁명의 노래, 당의 노래를 더욱 힘차게 부르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우 정 혁

강원도인민병원에서

목표를 높이 세우고 떨쳐나서

강원도인민병원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리여있다.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이곳 일군들과 의사, 약제사, 간호원들은 남달리 목표가 높고 열정이 불같다.

올해에 들어와 이들은 환자치료사업과 입원병동건설을 다같이 밀고나가는 긴장한 속에서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랑할만 한 최첨단 연구성과들을 내놓았다.

이들이 지난 4월에 진행된 제1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성과들은 나라의 인민보건사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것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보건부문에서는 진단과 치료방법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권영준, 박태봉, 곽영구, 리유현동무들을 비롯한 병원의 일군들과 의사, 약제사들이 올해에 내세운 목표는 높고 방대하였다. 과, 부서들에서 스스로 내세운 최첨단 돌파목표 역시 결코 간단치 않은것들이였다.

병원당조직에서는 내세운 목표가 아름찰수록 키잡이역할을 잘하고있다. 수행정형이 월, 분기별로 총화대책되는것은 물론 병원적인 방조가 뒤따르고있다.

시작을 떼여 넉달만에 완성한 연구성과가 그의 대표적 실례로 된다. 과장 김경희동무를 비롯한 종합실험검사과의 의료일군들은 실험검사의 종합적프로그람화를 실현할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것은 수십개 지표에 달하는 검사를 광전비색계를 쓰지 않고 검사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는 높은 목표였다. 대비분석에 리용되는 기준물질을 구입하는것도 문제였고 지원체계에 들어가는 검체화상입력장치제작 또한 난문제로 나섰다.

애로와 난관이 막아설 때마다 조직과 동지들의 방조가 큰 힘을 주었다. 이들은 끝끝내 하나의 검체로 수십개 지표를 검사할수 있는 프로그람을 완성하고 검체화상입력장치도 훌륭히 제작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신이철, 황룡동무를 비롯한 기능진단과의 의료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진단치료설비의 콤퓨터화를 실현한것도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높이 세운 목표들은 당의 령도업적을 과학으로 받들어가려는 이들의 불타는 열정에 의하여 훌륭히 달성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 현

공장에서 — 꽃다발을! — 본사기자 장청일 찍음
— 경암산은하피복 영예의 혁신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뿌리와 열매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창조과 지도교원 강복순동무

거목이 될 나무는 싹부터 알린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나무도 늘 곁에서 가꾸어주는 손길이 없다면 재목으로 되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된것은 얼마전 천내리세멘트공장에 대한 취재길에서 한 녀교원을 알게 된 때부터이다.

그는 지난 기간 재능있는 손풍금수들을 수많이 키워낸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창조과 지도교원인 강복순동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학생들이 기술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 나라를 알고 우리 혁명을 알며 우리 사회를 알고 우리 인민을 알게 하여야 한다.》

그날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모인 가운데 흥겹고도 의체로운 예술소품공연이 진행되였다. 공연은 첫시작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손풍금을 능란하게 연주하는 저 학생이 설맞이모임때 〈우리 분단 설맞이〉 종목에 출연했던 주인공이 아니요?》

《정말 보배덩이구만. 그 어린 나이에 손풍금도 잘 치고 노래까지 멋들어지게 부르니 저런 재간둥이를 키운 부모들이 누군지 알고싶구만.》

…

여기저기서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런 속에 종목이 여러번 바뀌고 마지막순서로 로동자들이 그처럼 입이 닳도록 칭찬하던 그 소년의 아버지가 나섰다. 자기가 바로 방금전에 출연한 손풍금수 김성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휴식일을 리용하여 온 가족이 떨쳐나 지원물자와 함께 노래를 안고 공장을 찾게 된데는 성원이선생님의 수고도 깃들어있다고 하면서 그는 그때껏 무대뒤에서 나올념을 하지 않던 강복순교원을 로동자들앞에 내세웠다.

《이 선생님이 바로 우리 성원이를 말아 훌륭히 키워주는, 우리 가정을 오늘처럼 들끓는 대교조격전장으로 떠밀어주군 하는 고마운 스승입니다.》

불밝은 궁전의 소조실을 멀리 떠나 손풍금을 멘 제자를 앞세우고 굳이 증산의 동음높은 전투현장을 찾아온 녀교원의 모습은 그때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기였다.

그날 공연에 출연한 사람은 불과 몇명뿐이였다. 공연시간도 기껏해서 30분밖에 안되였지만 그 길지 않은 시간속에는 제자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쳐가는 한 녀교원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가 짙게 어려있었다.

강복순교원이 금성제1중학교 3학년에서 공부하는 김성원학생을 맡아 키우게 된것은 몇해전부터였다.

유치원시절부터 음악공부를 시작했다는 성원이는 확실히 선률에 대한 감각이 남달리 예민하면서도 정확하였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어지간히 귀가 열린셈이여서 배워줄 재미가 있었다. 그렇다고 만족할것은 못되였다.

수십년간 손풍금수를 키워오는 과정에 터득한 자기 식의 손풍금교수방법을 성원이의 체질적특성과 감정심리, 특기에 맞게 잘 적용하여야 하였다.

하지만 그 일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았다.

워낙 장난기가 심한 10대의 어린 소년인지라 집중력이 부족하였고 차츰 여러 독주곡들을 능란하게 연주할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랑개를 늦추고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강복순교원은 어린 성원이를 불러앉히고 조용히 물어보았다.

《성원인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싶습니까?》

언제나 선생님의 물음에 막힘없이 척척 대답하군 하던 성원이가 그 질문에만은 주밋거리며 입을 열지 못하였다.

십분 리해는 되였다. 희망보다 가지가지 욕망이 더 먼저 앞서는 시절이고 자기 앞날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어린 성원이였던것이다.

그렇다고 나이 12살을 작다고만 볼수 없었다.

12살, 바로 그 나이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하자면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크나큰 뜻을 품으시고 배움의 천리길에 나서지 않으셨던가.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강복순교원의 머리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쓰신 나에게 있어서는 그 천리길이 조국을 알게 하고 우리 인민을 알게 해준 하나의 큰 학교였다라는 글발이 떠올랐다.

그날을 계기로 강복순교원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학생들에게 순수 음악, 순수 기량만을 배워줄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률을 익혀도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고마운 품을 먼저 노래할줄 알고 보답의 선률로 화답할줄 아는 그런 마음부터 심어주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성원이를 비롯한 소조학생들에게 교수의 짬시간을 리용하여 백두산위인들의 혁명업적을 칭송한 노래들을 하나하나 꼽아가며 설명도 해주고 위인칭송의 송가들을 창작형상한 우리 나라의 관록있는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 과정에 소조원들의 가슴속에는 선률은 건반우에서가 아니라 애국의 마음에서 먼저 울려퍼져야 한다는 숭고한 자각이 싹트게 되였다. 손풍금연주기량도 날을 따라 높아갔다. 하지만 강복순교원은 칭찬을 서두르지 않았다. 교원의 값눅은 칭찬 한마디가 학생들의 앞날을 그르칠수 있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그였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어느 노래나 할것없이 능란하게 반주할수 있을뿐아니라 편곡도 자체로 할수 있게 소조원들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이였다.

그의 불같은 열정은 드디여 알찬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다. 해마다 진행되는 설맞이모임에서는 물론 전국적인 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들에서 그가 맡은 손풍금소조의 학생들이 뛰여난 재능을 보여주어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중국을 방문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성원으로서 자기의 재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노래 한곡을 부르고 반주를 해도 자기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키워주신 아버지장군님을 목청껏 칭송할줄 아는 학생소년들의 기특한 모습은 방문 전기간 중국의 벗들의 찬탄을 자아냈다.

성원이도 그날의 그 돋보이는 주인공들중의 한명이였다.

천내리세멘트공장에서의 예술소품공연이 그토록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낸것도 바로 그때문이였다.

나이보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는 마음이 더 먼저라는 이런 기특한 학생들을 거느린 교육자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러나 오늘도 강복순교원은 자만을 모른다.

뿌리는 열매를 위해 필요하다.

열매를 위한 뿌리, 조국의 미래를 위한 그런 뿌리로 살려는 불타는 일념을 안고 강복순동무는 지금도 소조원들에 대한 교육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박 옥 경

우리 나라 팀 2010년 웰남축구협회컵국제축구경기대회에서 우승

우리 나라 남자축구팀이 2010년 웰남축구협회컵국제축구경기대회에서 1위를 쟁취하였다.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웰남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우리 나라 팀(21살미만)과 웰남국가축구종합팀, 싱가포르국가축구종합팀, 남조선올림픽축구종합팀(21살미만)이 참가하여 련맹전을 벌리였다.

우리 나라 팀은 2일에 진행된 첫 경기에서 싱가포르팀을 2:1로 이기고 4일 남조선팀과 1:1로 비기였다.

6일 우리 나라 팀은 웰남팀과의 마지막경기에 출전하였다.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주체적인 경기원칙과 방법을 구현하여 든든한 방어진을 펼치고 맵짠 공격을 들이댐으로써 웰남팀을 2:0으로 이겼다.

결국 우리 나라 팀은 종합점수 7점을 획득하여 우승하였다.

2010년 웰남축구협회컵국제축구경기대회에서의 성과는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후방가족이 된 긍지를 안고

대령광산 청년갱 중대장 김성환동무의 가정은 자식들모두를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인민군후방가족이다.

김성환동무와 그의 안해는 자라나는 자식들에게 군대가 강해야 조국도 굳건해질수 있고 가정의 행복도 있다는것을 늘 이야기해주군 하였다. 부모들의 당부대로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에 선 자식들은 군사복무의 나날을 위훈으로 빛내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조국보위초소에서 김성환동무의 자식들이 군사복무를 잘하고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광산의 종업원들은 제일처럼 기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있다.

김성환동무와 그의 안해는 인민군후방가족이 된 긍지를 안고 자식들에게 뒤질세라 맡은 일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면서 원군사업에도 앞장서고있다.

로농통신원 황 영 진

아시아나라 대학총장연단에 참가할 김일성종합대학대표단 출발

【평양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의 광주에서 진행되는 아시아나라 대학총장연단에 참가할 성자립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종합대학대표단이 8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리철호와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문화참사 리학혜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중국방문 김책공업종합대학대표단 출발

【평양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의 동북대학을 방문하기 위하여 홍서헌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대표단이 8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부총장 정광천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문화참사 리학혜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호지명국가정치행정학원대표단 도착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레 휴 응이 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호지명국가정치행정학원대표단이 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일성고급당학교 부교장 신영훈과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레 반 끄가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호지명국가정치행정학원대표단

핀란드공화국 외무성대표단 도착

빠씨 빠또깔리오순회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핀란드공화국 외무성대표단이 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소문난 호프생산단위로 되기까지

운흥호프농장 지배인 오현철동무와 종업원들

운흥호프농장은 해마다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 질좋은 호프가공품을 맥주공장들에 보내주고있다. 농장의 면모 또한 자랑할만 하다. 알뜰한 호프포전, 혁신의 동음 세차게 울리는 호프꽃건조장…

농장에서 이룩되고있는 이러한 성과들속에는 지배인 오현철동무의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사업과 생활의 실천투쟁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운흥호프농장이 조직될 당시 농장에는 호프밭이 몇정보밖에 되지 않았고 룹전기재도 부족하였다. 그런 조건에서 농장사업을 맡게 된 오현철동무는 량강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부터 다시금 깊이 학습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자로 하여 농장의 앞날을 설계하고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하나하나 쌓아나갔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 큰물피해로 하여 품을 들여 가꾸어놓은 호프밭이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되였다. 누구라없이 안타까와하던 그때 오현철동무는 종업원들에게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본다고 하면서 호프밭정리의 앞장에서 종업원들을 이끌었다. 동시에 그는 량강도의 특산물인 호프농사를 잘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려는 불타는 열의를 안고 농장의 청년들과 함께 받침나무로 쓸 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전투를 벌렸다. 큰물피해를 입은 포전에 필요한 올림줄과 쇠줄을 비롯한 자재를 마련하기 위하여 오현철동무는 평양과 남포 등으로 쉬임없이 걸었다.

이런 노력끝에 원상대로 복구한 포전에서 과학농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현철동무는 자신부터 기술도서를 구해다가 학습하였고 호프농사와 가공에서 경험이 있는 농장원들과 기능공들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사업에도 품을 넣었다.

한편 호프꽃건조장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건하였고 호프농사의 기계화, 화학화실현에서 많은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처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꾸려놓은 이 농장은 오늘 호프생산에서 도적으로 소문난 단위로 되고있다.

량강도에서 호프농사를 잘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오현철동무와 종업원들은 호프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 전국의 맥주공장들에 보내줌으로써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독자의 편지

《새 세대들을 자랑하고싶습니다》

저희들은 전쟁로병부부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것은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성 교육정보쎈터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고싶어서입니다.

우리가 교육정보쎈터의 일군들과 인연을 맺은것은 10년전 어느날이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세월이지만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하는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소장 조창혁동무를 비롯한 쎈터안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성의껏 준비한 많은 생활필수품들과 보약들을 안고 저의 가정을 자주 찾으면서 우리 로병부부를 친부모를 돌보듯 보살펴줍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돌려주기때문에 아무런 불편도 없다고 만류해도 그들은 조국을 위해 피흘려 싸운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잘 도와주는것은 새 세대의 응당한 도리라고 하면서 지성을 바쳐오고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이 짧은 편지에 어떻게 다 그릴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의 새 세대들은 정말 도덕이 밝고 의리가 깊은 훌륭한 인간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새 세대들을 세상에 자랑하고싶습니다.

모란봉구역 비파2동
김명식, 리률애

로씨야 하바롭스크시장일행 귀국

【평양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알렉싼드르 쏘꼴로브 로씨야 하바롭스크시장과 일행이 8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과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주조 로씨야련방대사관 공사참사가 손님들을 전송하였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공화국의 밝은 래일을 확신하며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남녘의 민심은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끓어번지고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의 분출이다.

남녘겨레는 이렇게 심장으로 웨치고있다.

—우리는 해와 달이 다하도록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따르렵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모시고 따르겠다는 진정의 목소리, 그것은 남녘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들을수 있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가 자기 집에 온 동료들과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런 말이 있다.

《요즘 이남민중들속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경모와 찬탄의 목소리가 전례없이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이것은 우리 민중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의 정을 폭발시키고있음을 말해준다.

자고로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거늘 우리는 이것을 거역해서는 안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남녘민심의 대하에 이 한몸 기꺼이 뛰어들겠다.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조국의 통일도, 민족의 부강번영도, 밝고 창창한 앞날도 있음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반공화국압살광풍을 쓸어버리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하여 질풍노도와 같이 내달리는 우리 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을 목격하면서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은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이북민중이 강하긴 강하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봉쇄를 강행돌파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떨쳐나섰다.》, 《북은 정녕 〈신비의 나라〉, 〈기적창조의 천국〉이다.》, 《강성대국건설의 포성을 울리며 나아가는 이북이 부럽기만 하다.》…

남녘인민들의 손에손을 거쳐 도처에 전해지고있는 출판물들과 인쇄물들마다에도 《북의 주민들은 자부심을 느낀다.》, 《식량난속에서도 의외로 락천적인 북녘사람들》 등의 공화국을 한없이 동경하는 격례의 목소리가 담겨져있다.

남녘인민들은 《이북의 강성대국은 성공한다.》, 《김정일강성대국을 보고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하고 있다.

이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 말인가. 지난해 우리의 힘과 지혜로 만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우주에 성과적으로 쏴올리고 지하핵시험을 단번에 성공시켰을 때 남녘인민들이 터뜨린 경탄과 환희는 과연 어떠했던가.

《북의 위성발사는 북이 세계적인 경제강국에 당당히 입성했음을 알린 신호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력의 〈도술〉로 세기를 주름잡아온 북이 이번에는 세상을 또다시 놀래운 인공위성 〈광명성2〉호의 발사로 경제와 과학기술의 최첨단에 올라선 강국임을 만방에 시위하였다. 남들이 직승기와 땅크를 만들 때 풀무로 농쟁기를 벼리던 우리 민족을 불과 반세기사이에 세계의 상상봉에 끌어올린 현대의 강국신화를 창조했다.》, 《북은 지하핵시험의 단번성공으로 무적의 강국상을 세계에 찬연히 아로새겼다.》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키돋움하는 우리 공화국을 남녘인민들은 한없이 동경하고있다. 로동자와 농민, 지식인과 청년학생, 종교인 등 각계각층이 우리 인민이 CNC기술의 패권을 쥐는 기적을 창조하고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료생산에 성공한 소식에 접하였을 때에도 이렇듯 경탄과 찬사를 터뜨리며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여 마지 않았다.

남녘겨레의 이 동경심은 단순히 한피줄을 이은 같은 겨레여서만이 품을수 있는 그런 감정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이 최첨단을 돌파하며 강성대국건설의 큰걸음을 내디딜수 있는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녀성종교인은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다.

《오늘 이북은 김정일장군님의 안녕과 권위를 지켜 목숨바쳐 싸우는 사람들, 과학탐구의 길에서 위훈을 세우는 사람들, 험산준령과 지하막장에서 조국을 위해 값높은 공헌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성한 숲을 이룬 영웅의 나라로 되였다. 이 모든것은 민중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덕정치를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덕정치하에서 이북은 장군님과 민중이 하나로 굳게 이어져 혼연일체를 이룬 강인한 모습으로 세계무대에 떠오르게 되였다.

나는 그 어떤 폭탄으로도 깨뜨릴수 없이 굳게 뭉쳐진 일심단결의 나라, 이북의 모습을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에서 보았다. 주석단에 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군대와 인민들, 그에 한없는 애정과 믿음을 담아 열렬히 답례하시는 김정일장군님, 그야말로 령도자와 민중이 혼연일체된 한모습이였다. 이것이 바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강성대국, 이북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고 그분에 대한 민중의 뜨거운 충성심이 있어 이북민중은 무한대한 힘의 소유자가 되였고 이북은 정치에서도 군사에서도 과학, 문화에서도 그 어디서나 강성대국으로 지구우에 우뚝 솟아올랐다.》

그렇다. 남녘겨레가 그토록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것은 바로 우리 공화국에 온 민족, 온 인류가 우러러마지 않고있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고 그이께서 가꾸어가시는 인민의 복된 세상이 펼쳐져있기때문이다.

남녘겨레가 공화국북반부에 일떠설 강성대국은 김정일강성대국이라고 부르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김정일강성대국!

이 말속에는 김일성민족의 무궁번영할 밝은 래일에 대한 남녘겨레의 확신이 담겨져있다. 천길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끗하고 백두산의 천연바위처럼 드림이 없는 그 믿음, 그 의지를 담아 서울의 태양회 회원들이 웨치는 목소리가 남녘의 하늘가에 울려퍼지고있다.

《우리 이남민중이 무엇때문에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그리워하는지, 장군님께 그토록 반해버렸는지 북에 계시는분들은 아마 다는 모를것입니다. 김정일장군님은 온 천하를 대신하는 우리의 힘이시며 기발이시며 미래의 전부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만 계시면 통일도 되고 우리 민족의 행복과 번영의 시대도 도래합니다.》

본사기자 최 철 순

대결광신자들의 유치한 모략소동

북남관계개선의 기회가 마련되고있는 요즘 남조선의 극우보수분자들이 그 어느때보다 바빠하고있다. 그들은 서울에서 열리게 될 국제회의를 계기로 우리를 모해하고 대결을 고취하기 위한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라는데서 《한나라당》패들은 국제회의를 전후하여 북이 《대남테로공작을 위해 〈알 카에다〉조직과 련계할 가능성이 있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그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파시 《천안》호사건과 같은 세상에 류례없는 유치한 특대형모략극, 사기극날조의 명수들만이 꿰칠수 있는 궤변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수패당이 떠들어대는 《북의 도발가능성》망발을 짜증이 날 정도로 들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알 카에다〉와 련결된 테로가능성》이라는 왕청같은 수작으로까지 번져지고있다.

남조선보수분자들의 이번 망발은 너무도 유치하고 터무니없는것이여서 사실 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지만 그런 엉뚱한 소리까지 서슴없이 내뱉으며 우리를 걸고 생떼질을 부리는 진짜 목적만은 까밝혀야 한다.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 공화국에 《도발》, 《테로》라는 모자를 기어코 씌워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합리화하며 북남관계개선을 어떻게 하나 저애하자는것이다.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여 북의 《도발》을 기정사실화하려던 남조선보수세력은 그 모략적 내막이 말짱 드러나 개코망신만 당하였다. 동족을 모해하려던 그들은 오히려 추악한 모략집단,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장본인으로 내외여론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심각한 정치적위기에 빠지였다. 하지만 남조선집권세력은 거기에서 교훈을 찾으려 하지 않고있다. 뿌리깊은 대결관념에 사로잡힌 그들은 《천안》호사건이 다거덜이 난 지금 우리를 계속 걸고들며 북남관계를 파국상태에 고착시킬 흉심밑에 또 다른 반공화국모략극을 꾸며내려고 허둥대고있다. 그 계기가 이번에 서울에서 진행되게 되는 국제회의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국제회의를 앞두고 요란한 《보안》소동을 벌리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무력대고 우리를 《주되는 위협세력》으로 규정한데 기초하여 《군사적도발》과 《테로》류형까지 설정해놓았으며 미국과의 《련합감시태세》와 《국지도발대비태세》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였다. 한편 6일부터 경찰을 갑호비상체제로 비상근무에 진입시키고 회의장주변에 5만여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경찰무력을 투입하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이러한 복닥소동이 실제로 그 누구의 《도발위험》이 존재하기때문에 벌어지는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짐작할수 있다. 그것은 《보안》의 간판을 단 또 하나의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소동이다.

남조선당국의 이 불순한 망동을 부채질하며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는것이 바로 《한나라당》을 위시로 한 극우보수패당이다. 그들은 국제회의가 진행되는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알카에다》까지 꺼들여 허튼 여론을 내돌림으로써 우리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려놓고 저들의 대화파탄, 협력거부책동을 정당화해보려고 날뛰고있다. 함선침몰사건에 이은 또 다른 모략극을 꾸며서라도 우리를 모해하고 대결야망을 실현하려는 남조선보수세력의 책동은 실로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있을수도 없는 그 누구의 《테로가능성》까지 광고하며 극도의 대결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은 우리의 대화노력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여론으로 궁지에 몰린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유치한 언동으로 내외여론을 오도할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짓은 없다.

남조선집권세력이 대세에 역행하며 우리를 걸고드는 도발소동에 열을 올릴수록 반통일광신자, 음모군으로서의 저들의 더러운 정체만을 더욱 드러내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남잡이가 제잡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송 영 석

조사결과의 허황성을 폭로

남조선의 기자협회를 비롯한 3개 언론단체로 구성된 《천안》함진상조사 언론보도검증위원회가 3일 함선이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된것이 아니라고 또다시 밝혔다.

단체는 당국이 《천안》호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발표때 결정적증거로 내세운 어뢰추진체내부에서 꽃모양의 흰색물질이 붙어있는 조개가 발견된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어뢰추진체가 함선침몰사건과 무관계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흰색물질은 물속에서 고체상태로 떠다니던 물질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조개가 이 물질의 생성전부터 어뢰추진체내부에 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고 단체는 지적하였다.

단체는 만일 이 흰색물질이 폭발과정에 생겨난 물질이 흡착된것이라면 조개껍데기에 꽃핀듯 한 형태로 남아있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통일을 위한 언론활동의 강화를 주장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창간 10년기념식이 3일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신문관계자들과 각계층 단체성원들, 야당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기념식에서 발언자들은 《통일뉴스》가 창간이후 10년동안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남북공동행사들을 빠짐없이 취재보도하고 여러차례에 걸쳐 북과의 언론교류를 성사시키는 등 통일을 위한 언론활동을 줄기차게 전개해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앞으로 신문이 민족의 화해, 단합, 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보도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대결적인 《통일세》 추진책동을 규탄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3일 론평을 발표하여 당국의 반통일적인 《통일세》추진책동을 규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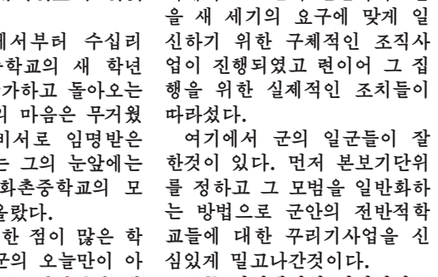
론평은 얼마전 통일부 장관 현인택이 현 《정부》임기내에 《통일세》를 도입할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와 통일부는 거액의 《남북협력기금》을 《통일세》연구와 선전비용으로 돌려쓰려 하고있다고 론평은 비난하였다.

론평은 당국이 추진하는 《통일세》란 그 무슨 《북붕괴》를 념두에 둔 반통일적이며 불순한 기도에서 출발한것으로서 민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가 북에 대한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개선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종교인들 4대강정비공사중지를 요구

대세에 역행하는 구태의연한 행위

북남관계가 개선되자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따라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속에 칼을 품고 우리와 대결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언제 가도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계속 벌리고있는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군사적 도발책동을 강화하고있는것도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파괴하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이다.

남조선당국이 얼마전 미국과 제42차 《년례안보협의회》라는 반공화국모의판을 벌린것은 스쳐지날수 없다. 남조선군부세력은 여기에서 그 무슨 《단호하고도 확고한 의지》니, 그 누구의 《도발》에 대비한 《상시적인 전투태세확립》이니 뭐니 하면서 미국과 북침전쟁쌍피리를 요란스럽게 불어대였다. 이를 통해서도 외세와 함께 북남대화분위기를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기 위해 날뛰는 남조선호전광들의 범죄적기도를 엿볼수 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북과 남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북남관계문제가 이렇듯 중요하고 절박하지만 남조선보수당국은 구태의연하게 대결정책을 고집하면서 대화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동족의 노력에 역행해나서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말로는 북남관계개선에 대해 운운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북남관계의 현 파국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들을 외면하는것은 결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서 온 겨레의 항의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백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제라도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전환하여야 하며 북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고 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반민족적범죄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엄 일 규

이들처럼 교육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자

봉 천 군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최근 봉천군의 교육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군안의 모든 학교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그 면모를 일신하고 교육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있다.

교육사업을 중시하는 기풍이 확고히 세워져 후원단체들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높아진것은 물론 교원들의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이 과정에 교원들속에서는 직업적혁명가의 긍지와 영예를 안고 조국의 미래를 훌륭히 키우기 위한 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미풍들이 발휘되고있으며 교원들의 높은 열의는 그대로 후대교육사업에로 이어져 군안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한계단 높아졌다.

알찬 열매는 비옥한 땅에 주렁지는 법이다.

봉천군의 교육사업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스러운 성과들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후대교육사업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어느때보다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을 진심을 바쳐 도와나선 봉천군안의 일군들의 뜨거운 애국심의 토양우에 주렁진 알찬 열매이다.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전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백마디의 강조가 아니라 하나의 눈에 뜨이는 현실적인 변혁으로, 이것이 봉천군 일군들의 교육중시기풍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이다.

그중에서도 최근년간 군안의 모든 학교들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면모를 일신한 사실은 우리 일군들이 후대교육사업을 중시한다는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것인가에 대한 생동한 실례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혁명을 일으켜 학교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새 세대들을 쓸모있는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내며 우리의 교육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년전 읍에서부터 수십리 떨어진 화촌중학교의 새 학년도개학식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군당책임일군의 마음은 무거웠다. 군당책임비서로 임명받은지 얼마 안되는 그의 눈앞에는 방금 보고온 화촌중학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은 학교의 모습은 군의 오늘만이 아니라 래일까지도 책임져야 할 군당책임비서가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없이 깨우쳐주고있었다.

다음날 군당책임비서의 방에서는 군안의 책임일군들이 모인 가운데 협의회가 열리였다.

《물론 아직 군에는 당면하게 힘을 넣어야 할 중요건설장들과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같이 생각해봅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길에서도 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며 대학들을 자주 찾아주시는지 그리고 만약 장군님께서 우리 군안의 학교들에도 찾아오신다면…》

격하여 미처 말을 맺지 못하는 일군의 솔직하고도 불덩이 같은 심장의 토로는 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학교는 교육사업의 거점이다. 학교의 면모는 교육의 질적수준과 후대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 등이 가장 뚜렷하게 비끼는 거울이라고도 말할수 있는것이다.

하다면 그 거울에 비낀 자기들의 모습은?!

말없는 자책과 반성속에 회의에서는 군안의 전반적학교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진행되였고 련이어 그 집행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이 따라섰다.

여기에서 군의 일군들이 잘한것이 있다. 먼저 본보기단위를 정하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군안의 전반적학교들에 대한 꾸리기사업을 신심있게 밀고나간것이다.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서도 역시 중요한것은 이신작칙이였다. 군당책임일군은 자신이 먼저 화촌중학교를 본보기단위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맡아할것을 결의해나섰다.

화촌중학교 일군들과의 여러차례에 걸치는 협의과정을 통하여 학교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타산안이 작성되였고 그 모든것을 몇달동안에 끝낼 대담하고 통이 큰 계획이 세워졌다.

어렵고 방대한 과제였으나 심장으로 접수하고 달라붙는 일에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군당책임일군의 이악하고 열정적인 일본새는 곧 군안의 모든 일군들에게 퍼져가 자기들이 맡은 학교를 화촌중학교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꾸리기 위한 된바람이 경쟁적으로 불어쳤다.

결과 지난해 150일, 100일전투기간에만도 화촌중학교, 대통중학교, 신답중학교를 비롯한 군안의 여러 학교들이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다른 학교들에서도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활동연구실들의 층막공사와 청사대보수공사, 울타리건설 등이 본격적으로 벌어져 군안의 모든 학교들의 모습이 나날이 변모되여갔다.

각종 교양실과 놀이실을 갖춘 2층짜리 봉천유치원을 훌륭하게 일떠세우고 폐성강기슭에 위치하고있던 백석중학교를 큰물피해를 받지 않는 안전한 곳에 옮긴것을 비롯하여 송정협동농장 10일유치원, 대통협동농장 10일유치원, 성기협동농장 10일유치원 등 완전히 새롭게 변모된 봉천군안의 교육기관들의 모습은 그대로 군안의 일군들의 교육사업에 대한 태도와 관점에서의 변혁을 보여주고있었다.

여기에서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하나의 문제가 있다. 분교꾸리기사업이다.

분교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뚜렷이 안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교육거점이다.

학생수가 많고 사람들의 눈에 뜨이는 학교들을 잘 꾸리는것도 중요하지만 몇명의 학생들을 위한 분교들을 잘 꾸리고 훌륭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은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봉천군에는 불과 몇명의 학생들을 위해 여러 리들에 세워진 10여개의 분교가 있다.

군의 일군들은 전반적인 교육기관들을 새롭게 꾸리면서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설사 한두명의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자라는 곳이 아닌가.

이런 투철한 자세와 립장으로 군에서는 행정리를 비롯한 여러 리의 분교들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하게 꾸려주고 책걸상들도 새롭게 갖추어주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한 일에서는 크고작은 일, 큰 학교, 작은 학교가 따로 있을수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닌 불같은 마음들이 펼친 교육중시기풍의 자랑스러운 화폭들, 그것은 이곳 일군들의 후대교육사업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와 관점을 들여다볼수 있게 하는 하나의 큰 거울인셈이다.

도와준다는것은 어디까지인가

최근년간 봉천군의 교육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통하여 주목하게 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우리 일군들이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도와준다는것은 어디까지인가. 그에 대한 대답이다.

지난 9월 화촌중학교에서는 도안의 교육일군들을 위한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학교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하게 꾸린것도 좋았고 학생들의 실력이 높은것도 자랑이였지만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것은 대용연료에 의한 전기생산방법을 창안도입하여 전기사정이 긴장한 속에서도 콤퓨터교육과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수업을 보장하고있는 사실이였다.

지난해 봄 군에서 조직한 교육지원전시회에 참가한 군당책임일군은 하나의 스쳐지날수 없는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였다.

(그 경험을 교육부문에도 도입한다면…)

군당책임일군은 군당집행위원들의 긴급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해보았다. 모두가 좋은 생각이라고 한결같이 지지해나섰다. 곧 화촌중학교가 시범단위로 선정되였고 본격적인 도입시험이 진행되였다.

대용연료에 의한 전기생산으로 콤퓨터교육과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수업, 외국어시청각실운영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으며 교원들과 학생들속에서 좋은 반영이 제기되였다.

화촌중학교의 경험은 군안의 모든 학교들에로 퍼져갔고 그 경험을 따라배우려고 전국의 수많은 교육기관들에서도 이 학교를 찾아오고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현실에서 그 은이 나타날 때까지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봉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교원들의 생활조건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교원은 교육사업을 책임진 직업적혁명가들이다. 나라의 교육사업은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이 교육사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준다고 할 때 교원들의 생활조건보장을 놓치지 말고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봉천군 일군들은 이 점을 중시하였다.

부족하고 어려운것이 많은 조건에서도 교단을 비우지 않고 후대교육사업에 전심하는 교원들을 위하여 군에서는 농촌리학교 교원들의 가족들로 분조를 조직하고 비경지를 개간하도록 조건을 보장하여주었다.

이에만 그치지 않고 군일군들이 자주 가족분조들에 내려가 농사실태도 알아보고 농사를 잘 짓도록 걸린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주었다.

진심은 진심을 얻는 법이다.

교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이 교육사업에 전심할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와주는 일군들의 노력은 그대로 교원들의 심금을 울려 말은 후대교육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해갈 불타는 열정을 낳게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해마다 새 학년도가 시작될 때면 군의 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학습장을 비롯한 학용품들을 맡아 해결해주는 기풍도 결코 무심히 스쳐지날수 없는 감동깊은 화폭이다.

우리 일군들이 후대교육사업을 책임지고 도와준다는것은 어디까지인가.

봉천군 일군들은 그에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렇게 대답하고있다.

진심을 다 바쳐 현실에서 실질적인 은이 나타날 때까지.

이것이 봉천군 일군들의 교육중시기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결론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봉천군 일군들처럼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심장에 새기고 후대교육사업을 진심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도와줄 때 강성대국의 더 밝고 훌륭한 미래가 마련될것이다.

본사기자 강 진 형
특파기자 리 승 철

과거청산은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법적, 도덕적의무

일본반동들이 이미 거덜이 난 《랍치문제》 보따리를 계속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유엔총회 제65차회의 3위원회에서 일본대표는 일본인 《랍치문제》가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 누구의 《불리행》과 《구체적행동조치의 결여》에 대해 떠들었다.

뻔뻔스럽기 이를데 없는 일본반동들은 어리석게도 이따위 수법으로 간악한 범죄의 가해자가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하여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악을 덮어버리고 과거청산을 회피하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간특한 행위는 그들이야말로 한쪼각의 량심도 도덕도 없는 철면피한들이라는것을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입니다.》

지난 세기 전반기 일제는 40여년간에 걸쳐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악독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였다.

특히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력사에 전무후무한 반인륜적죄악을 저질렀다.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반인륜적범죄행위는 오늘도 만사람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100여만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무력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조선민족말살을 《국책》으로 내세웠다.

일제는 이러한 《국책》집행을 위해 조선사람들을 혹가이도 아이누족처럼 멸족시켜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조선강점초기부터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우리 인민을 대대적으로 학살하였다. 일제는 《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을 비롯한 수많은 악법들을 조작하여 조선인학살에 국가권력을 동원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폭언하면서 우리 나라의 의병들과 독립군, 그 관계자 수십만명을 그 어떤 법적수속절차나 재판도 없이 마구 학살하였다. 그들은 1923년 간또대지진때에는 일본내무대신의 비밀지령에 따라 《조선인을 박멸하라!》는 살인적인 구호를 내걸고 군대와 헌병, 경찰들을 재일조선인학살에로 내몰았다.

일제의 조선인대학살만행은 야만적인 살해와 집단학살을 금지하고있는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였다. 공인된 국제법과 전쟁법규에는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각종 살인행위를 금지하며 민간주민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폭력행위 또는 힘에 의한 위협을 금지한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식민지통치기간에 국제법상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많은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 학살하였다.

오죽하면 일제의 조선인대학살만행을 직접 목격한 한 외국인이 자기 나라 집권자에게 보낸 편지에 《일본관리들과 병사들의 행동은 법이 없는 야만인들과 다름이 없다. …일반부인들과 녀학생들은 물론 10대의 어린 소녀들까지 잡아다가 모욕을 가하고 있으니 어찌 수치스럽고 통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일본인의 이러한 처사는 극히 야만적이고 잔혹한것이며 추호의 정리도 없는자들의 행위이다.》라고 썼겠는가.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전쟁대포밥으로 써먹는 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조선사람은 천명이 죽든 만명이 죽든 아까울것이 없다.》는 극도의 조선민족멸시사상이 골수에 꽉 들어찬 일제에 의해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죽음의 고역장들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일제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에 조선사람들을 대대적으로 강제련행하는 정책을 악랄하게 강행하였다. 1939년 1월 일제는 대륙침략에 요구되는 군수품생산을 보장할 목적으로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공포하고 이해 6월 1일부터 강압실행하였다. 《국민직업능력신고령》 조작은 조선에 있는 15살부터 50살까지의 로동능력있는 사람들을 깡그리 끌어가기 위해 그 수자를 정확히 장악하며 로동력강제 《징용》을 대대적으로 벌리기 위한 준비조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1939년 10월에는 《국민징용령》을 공포하고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길가는 사람들과 잠자는 사람들을 불의에 습격, 랍치하여 강제로동현장으로 보냈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위험개소가 많은 장소들에 배치하여 소나 말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며 혹독하게 부려먹었다.

일본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조선사람들은 거의나 헐벗은 몸이였다. 그들은 가장 가혹한 로동을 강요당하면서도 한줌도 되나마나한 보리밥 등에 멀건 소금국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 게다가 꺽하면 일제 경찰들과 감독들이 휘둘러대는 곤봉과 채찍 등에 얻어맞았으며 반항하면 총과 칼에 맞아죽어야 하였다. 강제로동판은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고역장이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강제련행, 랍치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동남아시아지역과 태평양지역의 여러 섬들에까지 끌고가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았으며 군사시설공사장 등에서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나중에는 《비밀엄수》라는 미명하에 집단적으로 학살하거나 생매장해버리는 만행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일제가 《징용》, 《징병》 등의 명목하에 수많은 우리 인민들을 강제로동판과 전장에 내몰아 혹사시키고 살륙한 범죄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과거 일제의 반인륜적범죄에서 절정을 이룬것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화한것이다.

악독한 일제는 병사들의 성욕충족을 전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전대미문의 성노예제도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저들의 침략군에 요구되는 수많은 성노예들을 조선녀성들로 충당할것을 계획하고 그들을 대량적으로 강제련행, 랍치, 유괴하였다.

인류력사에는 수많은 크고작은 전쟁들이 기록되여있지만 그 어느 전쟁사의 갈피를 헤쳐보아도 병사들의 성욕충족을 전쟁수단의 하나로 보고 수많은 타민족녀성들을 대량적으로 성노예범죄의 희생물로 만든 례는 없다. 이것은 민족배타주의, 군국주의 사고방식이 뼈속까지 배인 일제침략자들과 같은 살인악마, 호색광들만이 감행할수 있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행위였다.

일제가 성노예범죄행위를 조선녀성들을 기본대상으로 하여 벌린것은 조선민족말살을 위한 목적에서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10대의 소녀로부터 20살미만의 처녀들, 30살미만의 유부녀들과 애기어머니들까지 《위안소》들에 강제로 끌어다 가두어놓고 하루에 보통 20~30명 지어 40여명의 장교들과 병졸들에 대한 《성봉사》를 강요하였다. 일제야수들은 《…녀자들은 적의 자식을 낳기때문에 죽이라. 닥치는대로 강간해도 좋다.》라고 떠벌이면서 《위안부》들에게 상상할수 없는 정신육체적고통을 들씌우다가 무참히 죽이였다.

일제의 야수적인 만행으로 성노예로 끌려갔던 20만명의 조선녀성대부분이 희생되였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불과 얼마 안되는 녀성들도 자식을 낳을수 없게 되였다.

일본이야말로 과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야만적인 범죄국가이다.

일본은 마땅히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적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그에 대한 법적, 도덕적, 국가적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철면피하고 비렬하기 그지없는 일본은 과거 저들의 엄청난 반인륜적범죄행위는 덮어두고 그 무슨 《랍치문제》를 끈질기게 내들고 정치적흥정물로 내세우면서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려 하고있다.

일본이 과거청산을 미루면 미룰수록 그 죄악은 더욱 커지며 우리 인민의 대일복수심은 증폭될것이다. 일본은 이것을 명심하고 부질없는 오그랑수에 매여달리지 말고 하루빨리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

서 남 일

민족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이 특집하고 기념보도를 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수아라 까르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모시고 기념글들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 9월 28일 또다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시였다고 하면서 그이를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데 대하여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고계신다.

그이의 현지지도는 조선에서 경이적인 사변들을 안아오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있다.

라오스신문 《늄라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사진을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자주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딸리아 뗄레암비엔떼 TV방송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특출한 정치군사적실력과 비범한 령도로 근 반세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조선로동당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김일성민족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조선인민이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지닌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김일성주석의 사상에 기초한 당의 조직사상적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

본사기자

선군정치는 독특한 정치방식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 강조

우리 나라를 방문한 비슈와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조선인민의 모습을 목격하고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언제나 혁명무력강화에 선차적관심을 돌리시였다.

조선이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그이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주석 그대로 이신 김정일총비서께서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고계신다.

김정일총비서의 선군령도따라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열의에 넘쳐있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여 그것을 깊이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총비서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조선에 대해서는 감히 어쩌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조선에 모든 문제를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는 선군정치가 있기때문이다. 선군정치가 있어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이 오늘과같이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것이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선군정치는 가장 위력한 보검으로 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부강조국건설을 확고히 담보하는 조선의 선군정치야말로 가장 위력한 혁명령도방식이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할 독특한 정치방식이다.

백승의 선군정치로 세기적변혁을 이룩하고계시는 김정일총비서의 위대한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총비서의 선군령도에 무한히 충실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반드시 열어제끼리라고 확신한다.

본사기자

로씨야에서

신문 《백두의 기치》 제2호 발간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원동지역 주체사상, 선군정치연구협회가 신문 《백두의 기치》 제2호를 발간하였다.

신문은 1면과 2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환호하는 군중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전위대의 기념일》이라는 표제밑에 《당창건의 출발점》, 《당건설의 독창성》, 《당창건선포》, 《조선로동당마크》, 《사회주의위업의 향도자》라는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부터 조선을 해방하시고 혁명의 전위부대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으며 당을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향도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위력한 당으로 건설하신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신문은 3면과 4면에 어린이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사진, 백두산3대장군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사진들을 모시고 어머님의 혁명활동을 소개하는 글 등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또한 5, 6, 7, 8면에 《영웅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라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자료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인상담, 로씨야 블라고웨쉔스크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소 조 결성식 등을 소개하는 글들을 사진과 함께 실었다.

【조선중앙통신】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오늘은 캄보쟈인민의 국경절이다.

1953년 11월 9일 캄보쟈인민은 오랜 기간의 투쟁으로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였다.

아시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있는 캄보쟈는 오랜 력사유적과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다.

캄보쟈주민의 대부분은 크메르족이다.

크메르족에 의해 발전하기 시작한 캄보쟈의 문화에는 우수한 건축술과 우아한 조각술이 반영된 이름난 걸작들이 많다. 그것은 특히 앙코르시대에 절정에 달하였으며 앙코르와트(와트는 절이라는 뜻)와 앙코르톰(톰은 크다는 뜻) 사원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수 있다. 도시와 마을들에는 크고작은 사원들이 많다. 이로 하여 캄보쟈는 일명 《사원이 많은 나라》라고도 불리운다.

국기에도 사원이 그려져있다.

예술을 좋아하고 력사를 귀중히 여기는 캄보쟈사람들은 크메르문화의 전통을 살려나가고있다.

캄보쟈인민은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경제적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농촌하부구조건설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있다. 농업에서는 벼농사가 기본이다. 강냉이, 후추, 차, 목화, 고무나무 등도 심고있다. 후추생산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고있다.

캄보쟈정부와 인민은 년평균 6~7%수준의 지속적인 경제장성보장과 보건증진, 인재양성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제3차 5개년민족경제발전계획(2006-2010)을 완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정부는 빈궁률을 2015년까지 19%로 줄일 계획이다.

캄보쟈에서는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캄보쟈수상은 어느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안정을 보장하는것이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여야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고 하면서 전체 인민이 령토완정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캄보쟈는 독립, 자주, 평화, 영구중립, 령토완정과 뿔럭불가담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아세안성원국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나라의 사회정치적안정과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캄보쟈인민의 노력은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라 명 성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에서

중국에서 도시들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수처리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 5년동안 전국적으로 도시들에 2 630개의 오수처리장이 건설되였다.

이 오수처리장들에서의 하루 오수처리능력은 1억 2 200만㎥에 달한다.

또한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에서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300여만명의 산간지역 주민들의 먹는물문제를 해결하였다.

이것은 계획된 과제를 넘쳐 수행한것으로 된다.

자치구에서는 주민지역들에 수도관을 늘이고 우물들도 많이 건설해놓았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올해 9월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9% 증가하였다.

3일 이 나라 국제무역 및 공업상이 이에 대해 밝혔다.

베네수엘라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살림집건설에 힘을 넣고있다.

정부는 다음해말까지 아라구아주에서 2단계에 걸쳐 8 0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정부에서 살림집건설에 많은 자금을 할당하였다.

짐바브웨에서

짐바브웨에서 집짐승병이 퍼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수의방역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 나라에서는 240여만마리의 집짐승들에 대한 예방와꾠접종사업을 진행하였다.

예방접종깜빠니야는 2011년 6월까지 계속되게 된다.

단평

히스테리적발작

중추신경계통에 기능장애가 오면 경련발작이 일어나는 법이다. 이것을 두고 의학계에서는 히스테리라고 한다. 일본의 핵무장화의 《뤼요성》에 대해 목청을 돋구는 극우익분자인 도꾜도 지사 이시하라의 군국주의적발작을 그에 비유할수 있다. 그는 이번에 핵무장화망발로 자기의 군국주의적기질과 본색을 다시금 드러내여 만사람의 눈총을 받고있다. 그가 일본의 핵무장화를 제창해나선것은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일본이 어떤 전적을 가지고있는 나라인가 하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다. 일본은 과거에 침략전쟁에 미쳐돌아치다가 패전의 치욕을 당한 전범국이다. 이러한 일본의 정객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군국주의독소에 푹 절어가지고 물덤벙술덤벙하고있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핵피해국인 일본에서 야심적인 핵무장화타령이 공공연히 튀여나오는것이다. 하긴 핵무기가 없었던탓에 태평양전쟁에서 패했다고 못내 가슴앓이하는 일본반동들이고 보면 히스테리적발작을 할만도 하다. 이런자들이 활개치며 일본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있으니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망에 환장한 일본반동들이 핵무장까지 갖추게 되면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마구 날치며 못하는짓이 없게 될것은 뻔하다. 그렇게 되면 인류에게 어떤 재난이 들이닥칠것인가 하는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것만큼 이시하라와 같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마구 날뛰며 히스테리적발작을 일으키는 일본의 극우익분자, 호전광들의 망동을 절대로 묵인하여서는 안된다. 이런자들의 머리통을 제때에 수술하여 바로잡지 않으면 일본이 큰 랑패를 볼수 있고 세계가 화를 입을수 있다. 내외민심이 이시하라의 분수없는 망동에 랭소를 퍼붓는것은 당연하다.

조 택 범

여러 나라들사이의 협조

-중국과 레소토가 10월 31일 농업,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협조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중국과 마쟈르는 경제, 무역분야에서의 협조와 문화적교류를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과 아제르바이쟌이 10월 26일 군사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이란과 아르메니야는 에네르기, 무역 등 분야에서 호상협조할데 대한 3건의 량해각서에 조인하였다.

-수리아와 남아프리카가 10월 21일 경제분야에서 호상협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20일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에네르기,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11건의 량해각서를 채택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반테로전》에 돌아치는 미군이 이 나라 항쟁세력의 공격으로 계속 병력손실을 입고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손실 증대

4일 미국방성은 아프가니스탄전쟁개시이래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죽은 미군수가 약 1 26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미국은 세계최악의 인권침해국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최근 한 TV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을 세계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저들의 인권침해행위를 숨기려고 애쓰면서도 인권문제를 걸고 다른 나라들을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세계렬강들은 다른 나라들이 인권을 어떻게 옹호하는가에 대해 문제시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일본과 미국 합동군사훈련 감행

일본륙상 《자위대》와 미륙군이 5일 일본 혹가이도의 가미후라노기지에서 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하였다.

훈련에는 일본륙상 《자위대》에서 450명, 미륙군에서 280명의 병력이 참가하였다.

이날 훈련에서는 직승기수송과 미군의 륙상전개 등 각종 연습이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발광적으로 벌어졌다.

영국에서 파업

영국에서 4일과 5일 BBC방송회사 종업원들이 임금인상과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파업을 벌렸다. 로조단체의 호소에 따라 일어난 파업에는 4 000여명의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파업으로 TV와 라지오방송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에짚트에서 고대조각상 발굴

에짚트의 고고학자들이 최근 남부도시 룩소르에서 고대조각상을 발굴하였다.

고대에짚트왕과 신을 형상한 이 조각상은 지금으로부터 3 400년전의것으로 추측되고있다. 발견된 조각상은 당시 에짚트의 문화발전수준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본사기자

계속되는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지진과 해일 등 련이은 자연재해로 막대한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고있다.

지난 10월 25일 밤 인도네시아의 쑤마뜨라섬주변에서 리히터척도로 7.2의 강한 해저지진이 일어났으며 다음날 오전까지 리히터척도로 5~6.2의 여진들이 9차례 있었다. 지진에 뒤이어 3~6m 높이의 강한 해일이 발생하여 주변의 섬들을 타격하였다.

그후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은 인도네시아의 쟈바섬에서 화산이 분출하면서 뜨거운 재를 내뿜었다. 해발고가 2 968m인 메라피화산은 여러차례나 분출하였다. 지난 4일 한밤중에 메라피화산이 또다시 분출하였다.

지진과 해일, 화산분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인적 및 물적피해를 입었다. 인도네시아의 해당 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 28일 현재 사망자만 해도 340명, 행방불명자가 370여명에 달하였으며 수만명의 리재민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앞으로 사상자수가 더 늘어날수 있다고 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높은 파도와 불리한 일기조건은 구조사업에 지장을 주고있다. 지원물자를 실은 배들이 높은 파도때문에 재해현장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중국 해남성에서는 무더기비로 해구와 문창, 경해 등 15개의 시와 현에서 129만 5 000명이 피해를 입고 13만 9 000명이 긴급소개되였다. 이와 함께 6만 7 400ha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900여채의 살림집이 무너졌으며 2 000여채의 살림집이 파손되였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손실액은 15억 2 000만RMB. Y에 달하였다.

캄보쟈에서는 며칠동안 계속 내린 무더기비로 수도와 12개 주가 피해를 입었다.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1만ha이상의 논이 못쓰게 되였다.

웰남중부에서는 3일동안에 내린 무더기비로 15만 2 000여채의 살림집이 물에 잠기고 사상자와 행방불명자들이 발생하였다. 투아 티엔-후에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들에서는 흙사태로 도로들이 막혀버렸다.

타이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큰물이 나 140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나라 재해방지국이 밝힌데 의하면 큰물로 북부와 동부, 중부의 평야지대들에 위치한 19개 주와 많은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나크혼 라트챠시마주라고 한다.

오스트랄리아동부에서는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고 큰물과 강한 바람이 들이닥쳐 일부 지역들에서 계절날씨가 뒤바뀌는 이상자연현상이 펼쳐졌다.

뉴 사우스 웨일즈주에서는 큰물로 하여 200여명이 소개되였다. 퀸슬랜드주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물적피해가 났고 정전으로 주의 동남부에 있는 살림집들과 기업소들에 전력공급이 중지되였다. 빅토리아주에서도 많은 눈이 내려 주의 일부 지역에 눈이 두텁게 쌓였다.

필리핀에서는 큰물과 함께 강한 태풍이 들이닥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많은 량의 알곡작물이 류실되였으며 막대한 재산피해가 났다. 흙사태들이 일어나 주요도로들이 폐쇄되고 농경지들이 침수되였으며 전력선들이 끊어져 필리핀북부의 넓은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세계의 여러 자연재해지역들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있다.

인도네시아대통령은 동남아시아나라들에 대한 방문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피해복구상황을 직접 료해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는 피해지역들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당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많은 건물과 도로가 파괴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리재민들이 당장 묵을 대피소를 마련하고있으며 식량과 먹는물, 담요,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타이수상은 피해지역을 시찰하고 정부가 큰물피해를 입은 주들을 방조하는데 330만 US$의 자금을 시급히 할당하는것을 승인하였다. 동시에 피해지역 주지사들에게 리재민들을 위한 구제자금을 제한없이 지출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자연재해지역들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복구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가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자연재해를 입은 나라들의 피해복구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며 도와주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연재해가 들이닥친 나라들에서 사망자가 발생한데 대해 애도의 뜻을 표시하면서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고있다.

유럽동맹은 지진과 해일, 화산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1차적으로 150만€분의 지원을 주기로 하였다. 유럽동맹은 앞으로 국제기구를 통하여 이 나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려 하고있다.

여러 국제기구들이 피해지역들에 원조물자들을 보내주고있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피해복구성원들이 해당 지역들에 파견되여 활동을 벌리고있다. 이러한 사업은 자연재해가 들이닥친 나라들의 피해복구사업에 도움을 주고있다.

본사기자

식량위기

볼리비아에서 식량위기를 겪고있다.

10월 15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현재 이 나라에서 290만명의 주민들이 식량부족으로 기아에 시달리고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녹아나는 나토군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이 이 나라 항쟁세력의 공격작전에 의해 계속 녹아나고있다.

10월 27일과 28일 남부와 북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폭탄공격으로 2명의 나토군병사가 또 즉사하였다.

수열병교해 확대

니까라과에서 수열병이 계속 퍼져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10월 19일 이 나라 보건성은 최근 전국적으로 43명이 수열병에 또 감염되여 이 병환자수가 18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사업을 진행하는 등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01203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분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